

神志의 活動과 衛氣의 역할 -衛氣의 浮沈과 精神의 活性에 대하여-

白上龍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A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Mental Activity and Function of Wi-gi

Back Sang-ryong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This paper referred to the relation between operation of Shinji[神志] and function of Wi-gi[衛氣]. Gi[氣] is the principle agent to practice it when Shinji, as a controller of a living thing represents the will of life. Specially, Wigi is an intermediary of operation and motive power of 'Shinji', and determines the ups and downs of activity and the response of it. Chilgyu[七竅] are the direct control passages when Shinji comes in and out to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body, and perceives and receives informations and reacts on those appropriately. Therefore, we can control the operation and condition of Shinji with physical methods to control Gi.

Key-word : Shinji[神志], Wi-gi[衛氣], Chilgyu[七竅]

1. 緒論

形體[肉體]와 神志¹⁾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 1) 일반적인 物質과 精神의 二分논리로 본다면, '形體와 神志'는 '精神과 肉體'라는 용어로 치환함이 더 보편적이다. 그러나 陰과 陽의 특성에 따른 有形과 無形の 分節을 따른다면, '有形의 形體와 無形の 神志'로 봄이 옳다. 精은 血과 더불어 神·氣의 陽성과 대대하는 陰質로 맞서기 때문이다. 「素問·解精微論」에서 "夫水之精爲志, 火之精爲神, 水火相感, 神志俱悲, …(무릇 水氣의 精華는 志이고 火氣의 精화는 神이니, 水火가 서로 감응하면 神志가 모두 슬퍼진다.)"고 하여, 음양의 대대관계에 따라 神과 志를 규합하여 神志라

兩軸이지만, 실제 생명체를 이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눌 수는 없다.

그러므로 生機를 추동하거나 病機의 발현과정에 있어서, 이 둘은 한몸처럼 混融되어 서로 涵養하고 推引한 것이 보통이지만, 일시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사물처럼 分節하여 활동할 때도 있다. 발동이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先後의 時間的 차이나 内外의 空間的 어긋남이 있다는 뜻이다.

神志의 의도나 형체의 활동을 막론하고, 이 것이 실제의 작용으로 발현할 때는, 반드시 氣

고 하고 있다. 「精神과 神志의 정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의 律動과 作爲를 매개로 한다. 즉 神志의 無形한 변화와 形체의 有形한 변화를 막론하고, 氣의 개입이 없다면 실제 사건으로 발현되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無形한 神志 그 자체의 本質이나 狀態 등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氣의 운동과 작위를 통해 유추해본다면 대강이나마 어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黃帝內經」을 탐독하던 중, 衛氣·營氣·經氣 등 用도와 發源處에 따라 分化한 인체의 여러 正氣 중, 衛氣가 神志의 正氣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氣라고 보고, 衛氣의 浮沈과 運行상태 등을 통해 神志의 活動을 역추적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단순한 精神療法로 神志의 이상을 조절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氣를 조절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神志의 活動이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때에, 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本 論

1. 精神과 神志의 정의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陰陽의 分化이치에 따라 精神과 形體 등 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은 다시 精과 神으로 분화하여 生命의 基底를 이루니²⁾, 정과 신의 존재는 生命體를 非生命體와 구분해주는 본질이다.

神은 생명체의 生命性으로³⁾, 생명활동의 모

든 변화를 주재한다⁴⁾. 각 생명체는 각자 자기의 생명성을 결정하는 神을 보유함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⁵⁾. 生命의 모든 生化과정은 신의 主宰하에 이루어지므로⁶⁾, 신은 또한 生命의 內在의 原理라고 할 수도 있다. 이 神의 성질에 따라 각 생명체는 독특한 자기만의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여타의 생명체와 구별되는 형체와 생명성을 갖추어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人間神의 독자성이 발현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체 有形·無形의 모든 기전과 현상 속에는 神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精은 부모의 陰神과 陽神이 融合하여 생겨나는 生命의 精華이니⁷⁾, 陰陽이 氣交하여 化生한 生命의 결정체이자, 생명체 生命의 眞氣가 맺혀 있는 生命의 근원이다. 또 생명체의 生命

皆虛,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矣(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에, ...어미로써 기초를 삼고 애비로써 난간을 삼으니, 神을 잃은 자는 죽고 신을 얻은 자는 산다. 100살이 되면 오장이 모두 공허해져 神과 氣가 모두 떠나고 형체와 뼈대만 홀로 남겨져(삶을) 마친다.)"

-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94. "神爲一身之主(神은 한 형체의 주인이다.)"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12. "眞人者, 提挈天地, 把握陰陽, 呼吸精氣, 獨立守神, 肌肉若一, 故能壽蔽天地, 无有終時, 此其道生.(진인은 天地를 提挈하고 陰陽을 파악하여 천지의 精氣를 호흡하여 홀로 서서 神을 지키니, 肌肉이 변함없이 한결같으므로, 수명이 천지를 덮을 수 있어 마치는 때가 없으니, 이것이 그 道가 생겨남이다.)"
- 6) 洪元植, 上揭書, p.257. 根于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 (中心에 근원한 것을 神機라고 하니, 신이 떠나면 樞機가 멈춘다.)" p.97. "凡刺之眞, 必先治神, 五藏已定, 九候已備, 後乃存鍼, ... (무릇 刺鍼의 眞諦는 반드시 먼저 신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장이 이미 안정되고 九候가 이미 갖추어져야 뒤에 鍼法을 存置할 수 있다.)"
- 7) 洪元植, 上揭書, p.168.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부모의 양쪽 神이 서로 얽혀 상합하여 형체를 이룰 때 신체에 앞서서 생겨나는 것을 精이라고 한다.)"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그러므로 生命의 來源은 精이라고 하니, 부모 양쪽의 정이 서로 얽힌 것을 神이라고 한다.)"

3) 洪元植, 上揭書, p.79. "人之始生, ...以母爲基, 以父爲楨, 失神者死, 得神者生也. ...百歲, 五藏

을 담은 그릇[器-形體]을 조성하는 근간으로8), 생명체의 신체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골격의 원천이다9). 따라서 각 생명체의 개별적인 형태의 형태는 精 안에 축적된 부모의 兩神으로부터 化生한 내 神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 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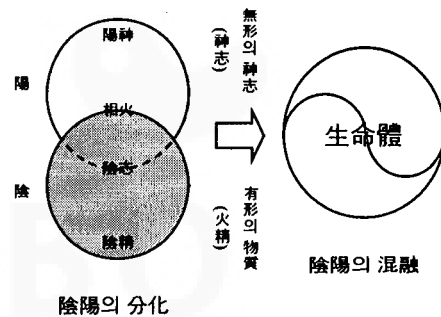
생명활동을 주도하는 神은 精과 陰陽의 대대관계를 이루어 생명 전체의 樞機變化를 관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 자체의 陰陽五行變化를 겪음으로써 形體와 분절되는 神志만의 生長化收藏을 밟는다. 즉 精·神·氣·血의 合一體로서 하나의 생명체는, 정과 신을 음양의 兩端 즉 陰極과 陽極으로 정립한 精神合一의 大循環을 경영하지만, 동시에 정은 정대로 신은 신대로 자체적인 小循環을 경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神 중에도 陰陽五行의 분화가 있고 精 중에도 음양오행의 분화가 있어, 一體 속에 분절된 獨自的 영역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五神이나 五藏之精 등이 분화하여 개별적인 本質과 性向 및 作用, 轉化과정 등을 갖는 이유이다.

오장지정이 藏精之官인 腎을 주축으로 하여 진화하는 陰精의 分節이라고 한다면, 五神은 당연히 神明之藏인 心을 주축으로 하여 조율되어지는 陽神의 分節임을 알 수 있다. 즉 정은 그 정의 소속이 어떤 藏인가에 상관없이 本質은 陰氣에 속하고, 神은 陽氣의 化生이라는 뜻이다. 이에 神만의 小循環 속에서 陰陽의 대대관계를 찾는다면, 神의 상대는 마땅히 腎藏에 의지하고 있는 志이다.

생명체의 음양이 混融하여 돌아가는 生命機轉 중에 偏陰과 偏陽으로 치우친 少機轉을 억

지로 분절하면, 有形의 肉體[偏陰]와 無形의 神志[偏陽] 기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전이 相合할 때 靈肉이 하나가 되는 有無混融[陰陽混融]의 기전으로 昇華한다. 유형의 물질기전에서는 形體의 뼈대인 陰精과 형체에게 活力을 일으키는 相火가 음양의 대대관계를 이룰 것이며, 유무혼용의 기전에서는 생명체 전체의 兩極을 대표하는 陰精과 陽神[精과 神]이 주체를 이룰 것이니, 무형의 神志 기전만을 떼어 내어 정립한다면 '神과 志'가 주체가 된다.

【그림-神志와 肉體의 陰陽 分化 및 混融圖】



따라서 精神은 형체와 의식이 합일된 生命體의 本質을 지칭하는 의미이므로, 生命의 意識을 주재하는 五神만을 陰陽論의 의의를 살려 명명한다면 神志라고 함이 합당하다.

2. 神志와 氣血의 互根

相火로부터 化生한 氣는 인체 生命활동의 動力이며10), 수곡으로부터 化生한 津액의 蒸化를 통해 생겨난 血11)은, 나머지 精·氣·神 등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6, p.20. “夫精者, 身之本也(무릇 精이라는 것은 신체의 근본이다).”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79.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먼저 精을 생성하니, 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腦髓가 생겨나니, 骨은 줄기가 되고...)”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23. “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壯火의 氣는 衰弱해지고 少火의 氣는 壯盛해지며, 氣는 소화를 먹고 장화는 기를 소산하며, 소화는 氣를 發生한다).”

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양해주는 滋養分이다.

생명체의 모든 활동은 생명의 동력인 氣의 추동을 받아 이루어진다. 즉 사람이 숨쉬고 말하며 운동하는 육체적인 활동과 느끼고 생각하며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神志의 활동 등은 氣라는 動力의 매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인 사건으로 발현할 수 있다. 氣는 온 몸을 두루 흘러 다니면서 신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건강과 존재를 위협하는 내외적 요인(邪氣)들에 의한 질병이나 감정의 변화 등을 일으킬 때도 기의 律動과 力量을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진다.

“인체의 氣는 한 몸의 주체이다. 기의 중요성은 온 몸을 두루 흐르고 바르게 운행하여야 병이 없다는 것이다. 기의 흐름이 어긋나면 수많은 병이 생긴다. 남자는 마땅히 그 기를 길러 神을 온전하게 보전해야하고, 부인은 마땅히 그 기를 화평하게 하여 그 月經을 조절해야 한다. 안으로 기의 운행을 손상시키는 七情 같은 것은 기쁨, 성냄, 근심, 생각, 슬픔, 두려움, 놀렘 등이니, 기빠하면 기가 흩어지고 성내면 기가 역행한다. ...밖으로 감촉하여 병을 일으키는 六淫은 풍, 한, 서, 습, 조, 화 등이니, 풍은 기를 손상시켜 疼痛을 일으키고, 한을 기를 손상시켜 戰慄을 일으킨다. ...”¹²⁾

血은 생명체의 모든 分氣¹³⁾들을 고갈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涵養하고 充塞하게 해주는 材質이다. 생명체의 모든 分氣들은 血의 함양과 충색함 없이는 자기의 역할과 존재를 保持할 수 없으니, 곧 생명체의 존재와 활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藏府나 經脈·骨節·肌肉 등도 모두 血의 자양을 받아야 비로소 소모된 形質과 氣質을 회복하고 존속할 수 있다.

“血에 들어 있는 뜻은, 하나는 榮이니, 영이라는 것은 榮華를 발현한다는 의미이다. 혈이 아니면 장부를 潤滑하고 경맥을 灌注하며 百骸(전신의 뼈마디 즉 온 몸)를 영양할 수 없으니, 이는 자양하고 기른다는 뜻이다. 두번째는 쫄이니 영이라는 것은 채움을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혈이 아니면 形質을 충만하게 하고 腠理를 충실하게 하며 백맥을 견고하게 할 수 없으니, 이는 안으로 지킨다는 뜻이다.”¹⁴⁾

이렇게 氣는 생명체의 모든 변화를 推動하는 動力으로서, 血은 기의 활동이 형체라는 개체의 領域[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材質로서, 서로 공존하면서 때론 制御하고 때론 助長하면서 생명체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神志도 또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分氣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활동하는 만큼 소모와 피로를 느끼며,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氣로부터 자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극도로 분화한 無形의 氣이기 때문에 스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168. “何謂血. 岐伯, 曰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무엇을 혈이라고 합니까. 中焦가 氣를 받고 즙액을 취하여 변화시켜서 붉어지게 하면, 이를 혈이라고 합니다).”

12)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醫聖堂 影印, 1993, p.162. “人身之氣, 一身之主也. 要在周流順行而無病矣. 逆則諸病生焉. 男子宜養其氣以全其神, 婦人宜平其氣以調其經. 若內傷七情者, 喜怒哀憂思悲恐驚是也, 喜則氣散, 怒則氣逆, ...外感六淫者, 風寒暑濕燥火是也, 風傷氣者, 爲疼痛, 寒傷氣者, 爲戰慄, ...”

13) 精·神·氣·血·脈·筋·骨 등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氣의 變態와 分化 및 合成을 통해 化生된다. 여기서 '分氣'라고 한 것은 이런 요소들의 개별적인 특징보다는, 똑같은 氣의 일종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4) 郭靄春, 中醫名言大辭典·上에서 再引用, 서울, 一中社, 1992, p.372. “費伯雄, 曰血之取義, 一爲榮, 榮者 發榮也, 非血則無以潤臟腑, 灌經脈, 養百骸, 此滋長之義也. 二爲營, 營者, 營者也, 非血則無以充形質, 實腠理, 固百脈, 此內守之義也”

스로 자신의 존재영역과 휴식을 규정해주는 틀을 갖출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모든 陽性의 기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지만, 陽化의 정점에 있는 神志는 특히 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神志의 存在的 불안을 해소해주고 함양하는 것이 바로 血이다¹⁵⁾.

또 神志는 생명체의 의지를 발현할 뿐 실재 이를 실행해 옮길 動力은 없다. 즉 意思만 가지고 있을 뿐 역량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神志의 의지가 실재 생명체의 활동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받들어 수족처럼 조용해줄 機括이 필요하다. 神志가 생명체의 주재자로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를 機括의 역동적인 행위로서 실행해주는 주체가 바로 氣이다.

“氣는 形體가 없고 機括만 있는 것이니, 기 팔의 움직이는 바에는 三焦의 宗氣·營氣·衛氣 등으로 分化하여 噴出함이 있다. 精은 형체가 있는 것이니, 형체가 있으면 稟質이 있어, 품질의 나뉘는 바로써 精·血·津·液 등 네 가지 등급의 같지 않음이 있다. 神은 형체도 없고 機括도 없으며 用事만 있으니, 용사의 이루는 바로써 五性의 大本을 미루어 본다.”¹⁶⁾

따라서 神志는 血을 居處와 滋養分으로 삼고 氣를 動力으로 활용하여, 생명체의 의도를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이끌어주는 생명활동의

주재자이다. 『東醫寶鑑·身形』에서는 精과 氣·神 등이 하나의 근본에서 출발하여 서로 互根¹⁷⁾함을 논하고, 또 형체¹⁸⁾는 神을 담는 집과 같은 것으로 精을 基盤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며 氣는 神의 주체라고 하고 있다¹⁹⁾.

3. 七竅와 神志의 出入

七竅는 頭面部에 위치하며, 내재한 생명의 중추 오장의 外候이다.

생명체는 내외의 여러 가지 변화를 의식·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均衡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오장의 神志는 감지된 이들 변화의 정보를 수용하여 기억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적절한 반응을 결정한다. 오장이 변화의 정보를 감지하여 수용하거나 분류하여 반응하는 경로나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空間의 위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體內에서 일어나는 機轉이며, 다른 하나는 體外에서 일어나는 기전이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기전은 자체의 生機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로서, 형체를 구성하는 여러 分節 單位들이 오장 神志의 지시를 받는 다른 단위 및 氣血과 一體의인 교류 및 교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함으로써 처리되어진다. 그러나 형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러한 일체화된 기전으로 처리되어질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101. “故養神者, 必知形之肥瘦, 榮衛血氣之盛衰. 血氣者, 人之神, 不可不謹養(그러므로 神을 함양하는 자는 반드시 형체의 肥瘦와 榮衛 및 血氣의 盛衰를 알아야 하니, 血氣는 사람의 神으로 삼가 자양하지 않을 수 없다).” 精校黃帝內經靈樞, p.172. “五臟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오장이 안정하여 血脈이 온화하고 통리하면 精神이 이에 거처하니, 그러므로 神은 수곡의 精氣이다).”

16) 周學海, 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 “氣者, 無形而有機者也, 以其機之所動, 有三焦之分出也. 精者, 有形者也, 有形則有質, 以其質之所別, 有四等之不同也. 神者, 無形無機而有用者也, 以其用之所成, 故推見五性之大本也.”

1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86. “氣者, 神之祖, 精乃氣之子, 氣者, 精神之根蒂也(기는 신의 祖宗이고 정은 이에 기의 자식이니, 기는 정신의 근체이다).”

18) 血의 蓄積이 有形을 化生하니, 여기서 血과 形體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9) 許浚, 上揭書, p.74. “麗仙曰, 精者身之本, 氣者神之主, 形者神之宅也, …(구선은 ‘정은 신체의 근본이고 기는 神志의 主將이며 형체는 神志의 거택이다’라고 하였다.)”

수 없는 공간적 격리상태에 있다. 따라서 内外의 경계에서 정보의 감지와 수용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정보의 근원이 체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은 체외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 형체에서 체외로 드러난 곳은 형체의 외면을 감싸고 있는 表皮와 외측으로 문호를 열고 있는 九竅이다.

특히 九竅는 내외를 하나의 통로로서 연결하고 있으면서 表皮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용도에 따라 분화되어 있어 정보의 수용 및 전달이 용이하다. 다만 下陰部에 있는 尿孔과 肛門 등 二竅는 체내의 배설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이므로 정보의 수용에는 적합지 않다. 반면에 상 七竅는 가장 외향적인 두면부에 위치하여 정보의 감지와 수용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장의 정기가 다른 경로를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天地의 동방에서 발생한 青色(木氣의 本色)은 인체에 들어와 肝에 통하고 눈으로 竅를 열며, ...남방에서 발생한 赤色(火氣의 本色)은 인체에 들어와 心에 통하고 귀로 竅를 열며, ...중앙에서 발생한 黃色(土氣의 本色)은 인체에 들어와 脾에 통하고 입으로 竅를 열며, 서방에서 발생한 白色(金氣의 本色)은 인체에 들어와 肺에 통하고 코로 竅를 열며, ...북방의 黑色(水氣의 本色)은 인체에 들어와 腎에 통하고 肛門과 精竅 등 二陰으로 竅를 연다.”²⁰⁾

천지의 五行之氣는 구구를 통해 인체의 오장과 서로 직접적으로 교통하며, 오장은 또한 구구를 통하여 천지의 변화를 自覺하고 자기의 氣를 교류할 수 있다. 즉 간은 눈으로 통하고, 심은 귀로 통하고, 비는 입을 통하여, 폐는 코를 통하여, 신은 이음으로 통하여 외계와 기

를 교류함으로써 정보를 취득하고 반응을 나타낸다²¹⁾.

오행지기가 자기 독특한 체질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칠규는 자기와 相通하는 오장 오행지기의 종류에 따라 자기 다른 形質의 氣와 반응한다. 천지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사건에 관여하는 陰氣와 陽氣의 多少 및 氣勢에 따라, 자기 독특한 形質의 氣를 발생하거나 推動시켜 다양한 기의 흐름(律動)을 일으킨다. 陽性이 강하면 빛이나 소리, 냄새 등의 흐름을 만들고, 陰性으로 치우치면 材質이 다른 여러 가지 物質로 化生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기의 흐름들이 공간을 유행할 때, 그 공간 내에 위치한 생명체는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七竅는 그 중에 자기가 감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의 흐름만을 잡아낸다. 귀는 수용영역의 소리만을 잡을 수 있고 입은 물질만을 잡을 수 있는 등이다. 사람이 자극을 받고 이에 반응할 때는 감각의 수용과 표출은 竅를 통해서 오장의 특화된 기능 속에 조율하는 것이다.

“五藏은 당연히 윗쪽으로는 七竅에 관련을 맺는다. 故로 肺氣는 鼻로 通하니 鼻가 和平하면 香臭를 맡는다. 肝氣는 目으로 通하니 目이 和平하면 白黑을 구별한다. 脾氣는 口로 通하니 口가 和平하면 穀味를 느낀다. 心氣는 舌로 通하니 舌이 和平하면 五味를 구별한다. 腎氣는 耳로 通하니 耳가 和平하면 五音を 듣는다...”²²⁾

인간에게 미치는 外界의 영향[정보의 형태]

20) 洪元植, 上揭書, pp.20~21. “...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 ...中央色黃, 入通於脾, 開竅於口,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 藏精於腎, ...”

21)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심의 竅를 혀라 하고 신의 竅를 귀라 하며, 하체에 있는 이음은 竅의 범주에서 논하고 있지 않다.

22)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一中社 影印. 1991, p.69. “五藏者, 當上關於七竅也. 故肺氣通於鼻, 鼻和則知香臭矣. 肝氣通於目, 目和則知白黑矣. 脾氣通於口, 口和則知穀味矣. 心氣通於舌, 舌和則知五味矣. 腎氣通於耳, 耳和則知五音矣...”

은 모두 氣의 分派된 形質과 運動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예로 소리는 귀가 수용할 수 있는 형질로 특화된 기의 운동이며, 빛은 눈이 수용할 수 있는 형질로 기가 특화된 것이며, 음식은 입이 수용할 수 있는 형질로 기가 특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와 상응하는 오장은 각기 특화된 기를 수용함으로써 독특한 자기만의 氣場을 형성하고 반응할 수 있다.

이때 상응하는 정보를 감지하여 수용하고 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것은 오장의 精氣이지만,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여해주는 것은 바로 오장의 神志이다. 神志는 七竅를 매개로 하고 五藏之精氣를 활용하여 각자와 相合하는 기의 흐름을 잡아내고, 기의 형질과 상태를 분석하여 적절한 정보를 얻어낼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五藏之精氣를 조종한다. 그중 神志의 의지를 가장 잘 대변하는 곳이 눈이니, 오장지정기가 총괄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오장육부의 精氣는 모두 눈으로 관주하여 精을 이룬다. 精의 오목한 부분은 眼이고 뼈대의 정은 瞳子를 이루며 근막의 정은 검은자를 이루고 혈맥의 정은 絡을 이루니, …눈은 五藏六府의 정화이며 營衛와 魂魄이 항상 운영하는 곳이고 신기가 발생하는 곳이니, …”²³⁾

따라서 七竅는 神志가 체내외로 출입하면서 情報를 감지·수용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표출할 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神志의 직할통로이며, 七竅를 통해 출입하는 오장의 정기는 神志의 媒介體라고 할 수 있다.

4. 神志의 出入과 衛氣의 浮沈

衛氣는 생명체 내에서 활동하는 氣 중 생명

체의 정상을 파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방어기제를 담당하는 氣이다.

1) 衛氣의 發生과 運行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추동하는 기를 발생시키는 부위에 따라 상중하로 크게 나누면, 宗氣·營氣·衛氣 등 세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上焦에서 발생하는 宗氣는 호흡을 관장하여 營氣와 衛氣의 運行을 鼓動시키는 기로서, 胸中에 膻中 氣海를 형성하고 心과 肺의 발산과 수렴작용을 통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中焦에서 발생하는 營氣는 陰性的인 津液을 함유하고 脈內로 순환하면서 생명활동 중 소모된 자원을 보충한다. 이에 비하여 下焦에서 발생하는 衛氣는 陽性的인 활력을 發揚하는 기로서 脈外로 자유롭게 屈伸하면서, 장부·근골·피부·기육 등의 孔隙를 채우고, 體外로 뻗어나가 생명체의 生命場(氣場)을 형성하여 外邪의 침습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가지 변동이나 자극으로부터 생명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위한다. 따라서 종기가 영기와 衛氣를 推動하여 生機를 구동한다면, 영기와 衛氣는 생명활동의 실무를 담당하는 陰氣와 陽氣로서, 신체 각 부위로 運行하여 生機의 음양 전화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宗氣는 胸中에 쌓여서 喉嚨으로 나와 心脈을 꿰뚫어서 호흡을 일으킨다. 營氣는 津液을 분비하여 脈內로 관주하여 血로 변화하게 해서 사말을 영양하고, 안으로 五藏六府로 흘러들어 刻數[시간]에 상응한다. 衛氣는 悍氣의 慄疾함을 이끌어내어 먼저 四末·分肉·皮膚의 틈으로 運行하여 쉬지 않는 것이다.”²⁴⁾

衛氣의 發源處에 대하여 『靈樞·營衛生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142. “五藏六府之精氣, 皆上注於目, 而爲之精. 精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目者, 五藏六府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 …”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298. “故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 而行呼吸焉.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會」 편에서 '衛出下焦'라고 하고 있다. 이는 衛氣의 근원이 下焦 腎中에 잠장되어 있는 陰精 속의 相火이며, 또한 陽氣의 다른 이름²⁵⁾임을 나타낸다. 하초의 陰精에 잠장되어 있던 元陽之氣[相火]²⁶⁾가 湧出하여 陽氣로 전화하여 體内外를 유행하면서 호위작용을 할 때, 이를 衛氣라고 한다. 그러므로 陽氣는 衛氣의 陰陽屬性을 衛氣는 陽氣의 位置와 機能을 상징하는 명칭이라고 할 것이다.

“배꼽 아래 腎間動氣는 사람의 생명이고 十二經의 根本이니, 그러므로 ‘原’²⁷⁾이라고 한다. 三焦는 原氣의 別使로 三氣를 通暢하여 운행하는 것을 주재하여 五藏六府를 거처 다닌다.”²⁸⁾

元氣 즉 元陽之氣는 사람 생명의 근원인 腎中 양기로, 한번 發揚하여 신체의 孔隙로 浮遊하면 곧 衛氣가 되고, 이후로 中焦의 水穀之

氣가 이 衛氣를 자양하여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니, 비로소 先後天이 하나로 어우러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즉 衛氣의 浮沈은 命門과 腎이 所在하는 下焦를 기점으로 하고 體表를 전환점으로 해서 체내외로 放散과 歸藏을 반복한다.

2) 神志의 出入과 衛氣의 浮沈

衛氣는 천지 밤낮의 교체를 따라 부침하여, 낮에는 陽分에서 유행하고 밤에는 陰分에서 유행한다. 낮에는 천지의 陽氣가 성행함을 따라 衛氣도 升浮하고, 밤에는 양기의 잠입을 따라 陰分인 오장으로 잠입하여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천지의 晝夜變化에 상응하는 衛氣의 유행형태는 생명체의 睡眠 및 覺醒과 호응한다. 그리고 衛氣가 升浮할 때 陽分으로 발현하는 문호가 바로 神志의 출입통로 중 가장 핵심인 눈이다.

“그러므로 衛氣의 유행은 一日一夜에 몸에서 50번 주행하는데, 낮에는 陽分에서 25번을 유행하고 밤에는 陰分에서 25번을 주행하니 오장에서 주행함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쭈뼛에 陰分을 마치면 陽氣는 눈으로 분출하고 눈이 떠지면 頭部로 상행하며, ...나닌 것은 상행하여 耳前에 이르러 頰脈에서 상합하고, ...엄지손가락 사이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진입한다. 발로 이른 것은 足心으로 진입하여 內踝로 나와 陰分을 하행하여 다시 눈에서 상합하니, 그러므로 一周가 된다.”²⁹⁾

衛氣의 유행이 陽分에서 일어나면 눈이 떠져 잠에서 깨어나고, 음분에서 일어나면 눈이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16.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 則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 是故陽因而上, 衛外者也(양기는 마치 하늘이 해와 함께 함 같아서, 그 위치를 잃으면 수명을 꺾어 창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늘은 마땅히 日光으로써 밝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양기는 (日出을) 따라 上浮하여 外表를 호위하는 것이다.)”

26) 朱震亨, 東垣十種醫書·科發餘論, 서울, 大星文化社 影印, 1983, p.502. “蓋相火藏於肝腎陰分, 君火不妄動, 相火惟有稟命守位而已, ... (대개 상화는 肝腎의 陰分에 잠장하여, 君火가 망동하지 않으면 相火는 오직 命을 품수하여 자리를 지킬 따름이니, ...)”

27) ‘原’은 根源을 상징하니, 으뜸의 뜻을 가진 ‘元’字와 상응한다. 東垣은 『脾胃論·脾胃虛失傳變論』 p.67에서, “歷觀諸編而參考之, 則元氣之充足, 皆有脾胃之氣, 無所傷以後, 乃能養元氣. 若胃氣之本弱, 飲食自倍, 則脾胃之氣既傷, 而元氣亦不能充, 而諸病之所有生也.”라 하고, 또 「用藥宜禁論」 p.80에서, “如陰火欲衰而退, 以三焦元氣未盛, 必口淡淡, 如臍物, 亦所當禁者”라고 하여, 생명을 지탱하는 根源의 氣를 元氣라고 하고 있다.

28) 凌耀星, 上揭書.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藏六府. 原者, 三焦之尊號也, 故所止輒爲原. 五藏六府之有病者, 皆取其原也.”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p.324. “故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藏.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別者以上至耳前, 合於頰脈, ...入大指之間, 入掌中.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 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감겨 잠을 잔다. 이는 衛氣 부침의 門戶가 神志의 내외 출입을 관장하는 七竅 중 눈이기 때문이다. 衛氣가 눈을 통해 양분으로 진입하여 나머지 오관을 깨우면 생명체는 천지의 낮과 같은 상태로 돌입하고, 다시 陰分으로 진입하면 오관도 잠이 들어 밤과 같은 상태로 돌입한다는 뜻이다.

칠규 즉 五官은 神志가 내외로 출입하는 통로이니, 오관이 깨어난다는 것은 神志도 또한 각성하여 의식상태에 들어감을 나타내고, 반대로 잠을 잔다는 것은 神志 또한 의식작용을 하지 않게 됨을 나타낸다.

“衛氣는 낮에는 양분에서 운행하고 夜半에는 음분에서 운행하니, 음분은 밤을 주재하고 밤에는 잠을 자며, 양기는 상승을 주재하고 음기는 하강을 주재하므로, 陰氣는 하초에 쌓이는데, …양분의 기가 다하고 음분의 기가 융성해지면 눈이 감기고, 음분의 기가 다하고 양분의 기가 융성해지면 잠에서 깬다.”³⁰⁾

神志의 활동 역시 氣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는 면에서 볼 때, 氣의 升降이 없는 한 神志의 활동 즉 의식의 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응관계는 천지의 변화를 따르지 않고 생명체가 독자적으로 神志를 발동하거나 쉴 때의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면이나 각성 상태가 반드시 천지의 주야변화와 상응하지 않듯이 衛氣 부침의 변화가 의식의 각성과 혼수의 상태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면의 장애에 대한 『黃帝內經』 제 篇의 언급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陰蹠와 陽蹠는 陰陽이 서로 교차하는 곳으로, 양분의 기가 음분으로 진입하고 음분의 기가 양분으로 분출할 때 눈의 銳眥에서 교차하므로, 양분의 기가 융성하면 눈을 감을 수 없

고 음분의 기가 융성하면 눈을 뜰 수 없다”³¹⁾ “지금 厥氣가 五藏六府에 침입하면 衛氣가 홀로 외표를 호위하여 양분에서 운행하고 음분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양분에서 운행하면 양분의 기가 융성해지고 양분의 기가 융성해지면 陽蹠가 그득하고 음분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음분이 허쇠해지므로, 눈을 감을 수 없다.”³²⁾

衛氣가 양분으로 몰려 양분의 기가 성해지면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눈을 감을 수 없고, 음분으로 기가 성해지면 의도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해도 눈을 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원인에 의하든 衛氣가 음분의 오장으로 潛入하지 못하면 지각력 판단력 등의 활동을 멈출 수 없고, 양분으로 표출하지 못하면 지각력 판단력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어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衛氣가 양분으로 표출하지 못하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知覺力이 깨어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의식이 불명료함을 설명하는 기전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노인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무슨 기가 그렇게 하는가? 젊은 사람이 낮에 잠들지 않는 것은 무슨 기가 그렇게 하는가. …젊은 사람의 氣血은 隆盛하고 肌肉이 滑利하여 氣道가 통창하고 營衛의 운행이 常道를 잃지 않으므로, 낮에는 명료하고 밤에는 깊이 잠듭니다. 노인의 氣血은 虛衰하고 肌肉이 枯澁하여 氣道가 澁滯하여 五藏의 氣가 서로 얽혀, 영기가 쇠소하고 衛氣가 안으로 침탈하므로, 낮에는 명료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들지 못합니다.”³³⁾

30) 洪元植, 上揭書, p.158. “衛氣, 晝日行於陽, …夜半則行於陰, 陰者主夜, 夜者臥, 陽者主上, 陰者主下, 故陰氣積於下, …陽氣盡, 陰氣盛, 則日瞑, 陰氣盡而陽氣盛, 則寤矣.”

31) 洪元植, 上揭書, p.130. “陰蹠陽蹠,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眥,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

32) 洪元植, 上揭書, p.298. “今厥氣客於五藏六府, 則衛氣獨衛其外, 行於陽, 不得入於陰, 行於陽則陽氣盛, 陽氣盛則陽蹠陷, 不得入於陰, 陰虛, 故目不瞑.”

33) 洪元植, 上揭書, p.119. “老人之不夜瞑者, 何氣使然. 少壯之人, 不晝瞑者, 何氣使然. …壯者之氣血盛, 其肌肉滑, 氣道通, 營衛之行, 不失

神志의 清明과 昏睡도 마찬가지로이다. 衛氣의 運行이 원활하여 常道를 잃지 않으면, 神志의 覺醒과 休息에도 절도가 있어, 淸명할 때는 淸명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평온하다. 그런데 營血의 손상 등 衛氣의 運行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滑利하지 못하면, 의식도 명료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知覺이나 判斷力 등이 떨어진다. 즉 젊은 사람이 의식이 명료한 것은 衛氣의 浮沈과 運行이 원활하여 판단력 지각력 등에 절도가 있기 때문이며, 노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밤낮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비몽사몽처럼 흐릿해진다. 이외에도 신체 的 감각능력이나 반응 또한 衛氣의 盛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³⁴⁾.

따라서 衛氣는 神志가 覺醒하여 外界環境의 變化를 감수하고 자신의 의지를 외부로 표출함에 있어 그 發動의 動力이 될 뿐만 아니라, 活動의 매개자로서 神志와 함께 浮沈하면서 物理的인 면에서 神志의 感應과 活動의 盛衰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III. 結論

지금까지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神志와 衛氣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생명체의 陰陽의 분화에 따른 두 가지 少機轉 중에 有形의 物質機轉에서는 形體의 때대

其常, 故晝精而夜瞑. 老者之氣血衰, 其肌肉枯, 氣道澀, 五藏之氣相搏, 其營氣衰少, 而衛氣內伐, 故晝不精, 夜不瞑.”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p.127. “榮氣虛則不仁, 衛氣虛則不用, 榮衛俱虛, 則不仁且不用, 肉如故也. 人身與志不相和, 曰死(영기가 허쇠하면 不仁하고 衛氣가 허쇠하면 불용하며 영위가 모두 허쇠하면 불인하고 또 불용하지만, 기육은 여전히다. 사람의 몸과 神志가 서로 공유하지 못하니, 죽는다고 한다).”

인 陰精과 活力을 일으키는 相火가 음양의 대대관계를 이루며, 無形의 神志機轉에서는 ‘神과 志[神志]’가 주체가 된다. 그리고 精과 神[精神]은 음양이 混融한 온 생명의 주체이다.

2. 神志가 생명체의 主宰者로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를 機括의 力動的인 행위로서 실행해주는 실체가 바로 氣이다.

3. 七竅는 神志가 體內外로 出入하면서 情報를 감지·수용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표출할 때 先導的인 역할을 하는 神志의 直轄通路이다.

4. 衛氣는 神志 發動의 動力이 될 뿐만 아니라 活動의 매개자로서, 神志와 함께 浮沈하면서 物理的인 면에서 神志의 感應과 活動의 盛衰를 결정한다.

IV. 參考文獻

1. 郭霽春, 中醫名言大辭典·上, 一中社 影印, 1992, 서울.
2.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7, 서울.
3. 龔廷賢, 萬病回春, 醫聖堂 影印, 1993, 서울.
4. 凌耀星, 難經校注, 中醫古籍出版社·一中社 影印, 서울.
5. 周學海, 讀醫隨筆,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北京.
6. 朱震亨, 東垣十種醫書·格致餘論, 大成文化社 影印, 1983, 서울.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6, 서울.
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脾胃論, 大成文化社 影印, 1983, 서울.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서울.